

18 인어 공주

CD2-06

한스 안데르센

¹ 깊은 바닷속의 인어 왕국에 왕과 여섯 공주를 비롯^[비로] 한 인어들이 살고 있었다. 공주들은 모두 **어여쁘고** 마^[탄]음씨도 고왔다. 그중에서 막내 공주는 호기심이 매우 많았다. “할머니, 바다 위 바깥 세상은 어떤가요?”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인간이 **있단다**.” 막내 공주는 궁금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가서 묻곤 했다.^[생각날] 공주들은 열다섯 살이 되면 물 위로 올라가 바깥 세상을 구경할 수 있었기에 막내는 어서 빨리 열다섯 살^[구경할 수]이 되기를 바랐다.

² 마침내 열다섯이 된 막내가 물^[조타는]으로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바다 위로 고개를 내밀고 세상 구경을 하던 공주는 눈이 번쩍 뜨였다. 한 배의 갑판 위^[인]에서 있는 잘생긴 남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 버린 것이다. 그런

人魚姫

한스·안데르센

Hans Andersen (P.091). 本作品は、アンデルセンが1837年に発表した創作童話で、『子どものための童話集』に収録。

¹ 深い海の中の人魚の王国に、王と6人の姫をはじめとする人魚が暮らしていた。姫たちは皆美しく、気立ても良かった。その中で末の姫は好奇心がとても旺盛だった。「おばあちゃん、海の上の外の世界はどんな感じ?」「二足で歩く人間がいるよ」。末の姫は、気になることを思い付くたびにおばあさんを訪ねては聞いていた。姫たちは15歳になると水の上に上がって外の世界を見物できたので、末の姫は早く15歳になることを願った。

² ついに15歳になった末の姫が陸に行ってもいいと許可をもらった。海の上に頭を出して世界の見物をしていた姫は、はっと目が開いた。ある船の甲板に立っているハンサムな男を見て一目ぼれしたのだ。しかしそのとき、

인어: 人魚 공주: 姫, 王女

¹ **비롯하다**: はじめとする。~을/를 비롯하여「~をはじめとする」という意味 **어여쁘다**: 美しい。예쁘다의 古風な表現 **마음씨**: 気立て。마음씨가 곱다または마음씨가 착하다で「気立てが良い」という意味 **호기심**: 好奇心 **-단다**: ~なんだよ。子どもに言い聞かせるときにこの形でよく使う **-곤 하다**: よく~する、~したりする。過去の習慣を述べるときに **-곤 했다** (よく~したものだ)の形で使う

² **물**: 陸, 陸地 **허락** (許諾): 許し。허락하다で「許可する、許す」、허락받다で「許可をもらう、許される」となる **고개**: 頭, 首 **내밀다**: 突き出す, 押し出す **번쩍**: ぱっと, はっと **뜨이다**: (目が)開かれる, 開く **갑판**: 甲板 **한눈에 반하다**: 一目でほれる, 一目ぼれする

데 때마침 높은 파도에 배가 흔들리고, 눈앞에서 부서
지고 만다. 공주는 바다에 떨어져 정신을 잃은 남자를

안고 헤엄쳐 물으로 갔다. 잠시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데, 어떤 여자가 오는 것이 보였다. 공주는 얼른 몸을
숨졌다.

³ 여자가 남자를 흔들어 깨우자 남자는 눈을 떴다. 그
리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살렸군요. 저는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나와 함께 궁으로 갑시다.” 인어 공



高い波に船が揺さぶられ、目の前で壊れてしまう。姫は海に落ちて気を失った男を抱えて泳ぎ、陸へ向かった。しばらく男を見詰めていたところ、女が来るのが見えた。姫はすぐに身を隠した。

³ 女が男を揺すって起こすと、男は目を開けた。そしてこう言った。「あなたが私を助けてくれたんですね。私はこの国の王子です。私と一緒に宮殿に行

때마침: ちょうど, 折よく -고 말다: ~してしまう 헤엄치다: 泳ぐ

³ 깨우다: 覚ます. 깨다 (覚める) に対応する他動詞 왕자: 王子 궁(宮): 王宮, 宮殿

주는 멀리서 두 사람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지켜볼 수]에 없었다.

4 바닷속으로 돌아온 인어 공주는 왕자가 몹시 보고 싶어 바다 마녀를 찾아가 물었다. “인간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게
[어떠게]다오. 그럼 다리를 만들어 주마.” 인어 공주는 마녀에게 목소리를 주고 사람이 되었다.

5 왕자가 사는 궁으로 찾아간 인어 공주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왕자를 만났지만, 그 어떤 표현도 할 수 없었다. 다만 왕자는 공주를 꽤 예뻐해 주었다. 공주는 왕자가 사랑해 주는 날만을 기다렸으나,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것은 왕자의 결혼
[드탄]이었다. 왕자가 이웃 나라 공주와 약혼식을 올리게 되
[이웃 나라] [야콘시글]자, 공주는 슬픔에 젖었다.

きましょう」。人魚姫は遠くから二人が消える姿を見守ることしかできなかった。

4 海中に戻った人魚姫は、王子にとても会いたくて海の魔女を訪ねて聞いた。「人間になりたいです。どうすればいいですか?」「おまえの美しい声を私におくれ。そうすれば足を作ってあげよう」。人魚姫は魔女に声をあげ、人間になった。

5 王子が暮らす宮殿を訪れた人魚姫は、あれほど恋しがった王子に会ったが、何も表現できなかった。ただ、王子は姫をとてもかわいがってくれた。姫は王子が愛してくれる日が来ることをひらすら待ったが、ある日天が崩れ落ちるような知らせを聞くこととなった。それは、王子の結婚だった。王子が隣国の姫と婚約式を挙げることになるや、姫は悲しみに暮れた。

4 마녀: 魔女 네: おまえの, 君의 달다: <くれる. 하오体命令形の다오 (おくれ) と, 命令引用形の달라고 (くれと) の形でのみ用いられる. その他の「くれる」にはず다を用いる -마: ~しよう. 約束や宣言を表す한다体の語尾だが, 物語などでしか使われない. 판マル의 -에게に該当する

5 그토록: それほど, あれほど. 名詞の그 (それ, あれ) に助詞の ~토록が付いて, 全体で副詞となっている 그리워하다: 恋しがる. 그립다 (恋しい) に-어하다 (~がる) が付いた形 -으나: ~するが. 逆接を表す語尾で, 書き言葉でよく使われる 무너지다: 崩れる -는 듯하다: ~するようだ 약혼식 (約婚式): 婚約式. 婚約した際に挙げる式

6 가끔씩 공주를 보러 찾아왔던 다섯 언니들도 이 소
[다서 던니]
 식을 들었다. 언니들은 막내를 다시 인어로 되돌릴 방
 법을 찾아 마녀를 찾아갔다. 마녀는 언니들에게 머리
 카락을 달라고 했다. “너희의 머리카락 대신에 칼을 주
 마. 이 칼로 왕자의 심장을 찌르면 다시 인어로 돌아올
[도라올]
 것이다. 하지만 왕자를 죽이지 못하면 막내는 물거품이
[꺼시다] [모타면]
 되어 사라진다.” 언니들은 칼을 가지고 막내에게 갔다.

7 인어 공주에게 언니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몇 번이고
[다그판]
 일렀다. “막내야, 오늘 밤에 꼭 짚러야 한다. 물거품이
[오늘 빠메]
 되어서는 안 돼. 꼭이다.” 언니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공주는, 한밤중에 곤히 자고 있는 왕자의 방에 들어갔
[한밤중]
 다. 칼을 들어 왕자의 심장을 겨누던 공주는 그러나 차
 마 꽃지 못하고 방을 뛰쳐나오고 말았다. 날이 밝자 인
 어 공주는 끝내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끝내]

6 時々姫に会いに来ていた5人の姉たちもこの知らせを聞いた。姉たちは
 末の姫を再び人魚に戻す方法を探して魔女を訪ねた。魔女は姉たちに
 髪の毛をくれと言った。「おまえたちの髪の毛の代わりに剣をやろう。この剣
 で王子の心臓を刺せば人魚に戻るだろう。しかし、王子を殺せなければ
 末の姫は泡となって消える」。姉たちは剣を持って末の姫の元へ行った。

7 人魚姫に対して、姉たちが差し迫った声で何回も言い聞かせた。「妹よ、
 今晚必ず刺すのよ。泡になっちゃいけないわ。必ずよ」。姉たちの言葉に
 うなずいた姫は、真夜中にごっすり眠っている王子の部屋に入った。剣を
 持って王子の心臓を狙った姫はしかし、どうしても刺すことができず部屋
 を飛び出してしまった。夜が明けると、とうとう人魚姫は泡となって消えた。

6 되돌리다: 逆転させる、元に戻す 너희: おまえたち、君たち 찌르다: 刺す、突く 물거
 품: 泡、あぶく ~에게: ~の所に。(人)에게 가다で「~の所に行く」、(人)에게 있다で
 「~の所にある」という意味

7 다급하다 (多急--): 差し迫っている、緊迫している ~이고: ~でも。~이나とほぼ同じ
 意味を表す助詞。몇 번이고で몇 번이나と同じく「何回も」となる 이르다: 言う、言い聞か
 세る、告げ口する 끄덕이다: こくりと振る。擬態語の끄덕(こくり)に~이다が付いて動詞に
 なった形。고개를 끄덕이다で「首を縦に振る、うなづく」という意味 한밤중 (--中): 真
 夜中、夜更け 곤히 (困-): ごっすり、ぐったり。力が抜けて意識がない様子。形容詞は곤
 하다となる 겨누다: 狙う、狙いを定める 차마: とても、とうてい、とてもじゃないが。後ろ
 に不可能を表す言葉が来る 꽃다: 差し込む、挿す、刺す 뛰쳐나오다: 飛び出す、飛び
 出してくる